

# 조선후기 歌辭에 나타난 지옥의 양상과 시대적 의미\*

김기종\*\*

<차 례>

1. 문제 제기
2. 佛典 속의 지옥
3. 조선후기 불교가사의 지옥
4. 지옥 형상화의 성격과 의미

##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후기 가사에 나타난 지옥의 형상화 양상과 그 시대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옥을 노래하고 있는 조선후기 불교가사는 지옥 관련 화소의 유무 여부와 내용적 경향성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지옥 관련 화소가 없고 ‘지옥’의 시어만이 등장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은 ‘지옥’의 시어를 통해 세상사에 탐착하고 貪·瞋·癡의 三毒에 빠져 있는 청자들을 경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청자들이 참선 또는 염불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다.

둘째 유형은 ‘징벌’의 양상과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 유형의 가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지옥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징벌의 이유로는 살생·똥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61-A00008).

\*\* 동국대학교

語·음주·邪見 등의 5惡 내지 10惡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저승길의 여정’·‘시왕의 심판’·‘지옥의 징벌’ 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작품들이 해당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회심곡>류 불교가사는 시왕의 심판을 받는 죄인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 뒤, 남자죄인에게는 선행의 덕목을, 여자죄인에게는 악행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의 덕목과 악행의 항목들에는, ‘보시행’ 및 ‘妄語·兩舌·惡口·綺語’ 등의 불교적 윤리 규범과, ‘삼강오륜’을 포함한 유교적 윤리 규범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적 특징은 당시 불교계의 사상적 동향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적·사회적 혼란, 그 중에서도 천주교의 교세 확장에 대한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지옥 형상화는 유교사회의 상식을 반영하여 유교와의 공존을 추구한 불교의 시대적 변용이자, 당시 널리 확산되고 있던 천주교의 지옥설에 대한 종교적·문학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핵심어 : 조선후기 가사, 지옥, 회심곡, 저승길의 여정, 시왕의 심판, 지옥의 징벌

## 1. 문제 제기

‘地獄’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범어의 naraka 또는 niraya를 현실의 감옥에 비유하여 번역한 용어이다. 범어 ‘naraka’는 본래 ‘행복이 없는 곳[無幸處]’을 의미했고,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두운 암흑세계를 뜻하는 말이었다.<sup>1)</sup> 이 용어는 佛典의 漢譯 과정에서 ‘奈落迦’·‘奈落’ 또는 ‘泥犁’·‘泥黎’ 등으로 음역되거나, ‘不自在’·‘狹處’·‘지옥’ 등으로 의역되었다.<sup>2)</sup>

1) 장미진, 「불교문화권에 있어 ‘지옥’의 원신화적 요소와 그 의미」, 『미술사학』 7, 미술사학연구회, 1995, 192쪽.

2) 박영철, 「나라카(Naraka)에서 地獄으로」, 『역사교육』 63, 역사교육연구회, 1997,

이들 역어 중,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된 것이 결국 ‘지옥’이었다. 불교의 ‘지옥’은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중국 고유의 泰山府君신앙과 결합되었고, 唐代가 되면 모든 중생은 죽은 후 생전의 죄업에 따라 冥府의 十王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시왕신앙’이 성립된다.<sup>3)</sup>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어서 불교의 업설과 윤회사상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시키는 데 가장 효력을 발휘했던 것은 지옥과 극락 관념이었다. 극락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면 지옥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각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추상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들의 일상적 생활원리로 적용되기 더 쉬웠다. 극락 관념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를 제시하지만, 지옥 관념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된다’ 정도를 제시하기 때문이다.<sup>4)</sup> 지옥관념은 인과응보설을 바탕으로 선행과 악행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 곧 사회적 행위의 規準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개인적·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실천하도록 이끈다. 지옥 관념에 대한 이해는 일정 시대와 일정 사회를 살아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원리를 이해하는 한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sup>5)</sup>

이에, 이 글에서는 중국·일본과 다른, 한국인의 지옥 관념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후기의 불교가사에 나타난 지옥의 형상화 양상과 그 시대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지옥 관념에 대한 논의는 무가·고전소설·설화 등의 문학작품<sup>6)</sup>과, 十王 및 지옥

104~106쪽.

3) 김태훈, 「죽음관을 통해 본 시왕신앙」, 『한국종교』 33,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09, 116~117쪽.

4) 나희라, 「통일신라와 나말여초기 지옥관념의 전개」, 『한국문화』 4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245쪽.

5) 나희라, 앞의 논문, 246~247쪽.

6) 조흥윤, 「한국지옥 연구: 巫의 저승」, 『샤머니즘연구』 1, 한국샤머니즘학회, 1999; 홍태한, 「한국 무가에 나타난 저승」, 『한국의 민속과 문화』 3,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2000; 소인호, 「저승체험담의 서사문학적 전개」, 『우리문학연구』 27, 우리문학연구회, 2007; 조재현,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저승계 연구」, 『어문연구』 3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최귀목, 「〈남염부주지〉의 지옥 형상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개신어문연구』 34, 개신어문학회, 2011; 김정숙, 「조선시대 저승체험담 속

의 형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十王圖<sup>7)</sup>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적지 않은 불교가사 작품들이 ‘지옥’을 노래하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지옥 관련 연구에서 이들 가사는 주목받지 못하였다.<sup>8)</sup> 물론 본고의 주요 논의 대상인 19세기의 ‘회심곡류’ 가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sup>9)</sup> 그렇지만 이들 논의는 대부분 이본들 간의 상호 관계 및 작품 변화, 향유 방식, 사상적 지향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조선시대 지옥 관념의 전개’라는 관점에서의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17~19세기의 불교가사는 57편<sup>10)</sup>으로, 이들 중 지옥·시왕의 시어가 등장하거나, ‘저승길의 여정’·‘시왕의 심판’·‘지옥에서의 징벌’ 등의 지옥 관련 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작품은 21편이다. 이 작품들은 대체로 49재·수륙재·예수재 등의 불교의식에서 구연되거나, 걸립패·탁발승·향두꾼 등에 의해 널리 확산된 것이라는 점<sup>11)</sup>에서 주목을 요한다. 곧 이들 불교가사는 당시의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지옥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儒者들이 창작·편찬한 고전소설과 야담

죽음과 환생의 이념성, 『Journal of Korean Culture』 2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5.

7)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김혜원, 「조선시대 18세기 十王圖연구」, 『동악미술사학』 13, 동악미술사학회, 2012; 김윤희, 「17세기 화승 哲玄作 十王圖 연구」, 『불교미술사학』 15, 불교미술사학회, 2013.

8) 다만, 김정희, 앞의 책, 156~157쪽과, 최근의 논의인 김정숙, 앞의 논문, 133쪽에서는, 19세기 ‘회심곡류’ 가사의 하나인 <별회심곡>과 시왕신앙과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9) 지병규, 「<회심곡>의 연구」, 『어문연구』 21, 어문연구학회, 1991; 이승남, 「불교가사 <회심가>와 <회심곡>의 대비 고찰」, 『어문학』 72, 한국어문학회, 2001; 김종진, 「<회심곡> 감상의 한 측면- 탕화와 관련하여」,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이영식, 「장례요의 <회심곡> 사설 수용 양상: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김동국, 「<회심곡>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전재강,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단락 전개·구성과 선악·생사관」, 『어문학』 115, 한국어문학회, 2012.

10)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출판부, 2000, 65~776쪽. 총 108편의 불교가사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이 책은 ‘17~18세기 문헌의 불교가사’(13편), ‘19세기 성격 문헌의 불교가사’(44편), ‘20세기 문헌의 불교가사’(38편), ‘20세기 문헌의 신체불교가사’(13편) 등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김종진, 『불교가사의 연행과 전승』, 이회문화사, 2002, 319~320쪽.

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 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옥 관련 불교가사는 그 창작 시기 및 연행의 상황에 따라 지옥 관련 화소의 비중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적 경향성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곧 18세기와 19세기의 일부 불교가사는 대체로 ‘저승길의 여정’과 ‘시왕의 심판’ 화소가 없거나 축소되어 있는 반면, <회심곡>류 가사들은 시왕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지옥에서의 징벌’ 화소가 축소되어 있다. 또한 중생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로 제시되어 있는 惡行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전자와 후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18·19세기 지옥 관련 불교가사와 <회심곡>류 가사의 차이점 및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 내지 의미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佛典에 나타난 지옥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후기 가사에 나타난 지옥의 특징적인 국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전 속의 지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2. 佛典 속의 지옥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어 지옥 관념의 유포는 佛典의 한역과 함께 시작되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지옥 관련 경전은 『佛說十八泥犁經』·『佛說罪業應報教化地獄經』·『佛說罵意經』 등으로, 148~170년에 安世高가 한역한 것이다. 이후 『佛說鐵城泥犁經』(東晉 竺曇無蘭 역), 『中阿含經』 권12의 「五天使經」, 『增一阿含經』 권24의 「善趣品」(이상 東晉 僧伽提婆 역), 『長阿含經』 권19의 「世紀經」(姚秦 佛陀耶舍 역), 『正法念處經』(魏 般若流支 역), 『起世經』(隋 闍那崛多 역), 『地藏菩薩本願經』(唐 實叉難陀 역) 등의 지옥 관련 경전들이 차례대로 번역되었다.<sup>12)</sup> 그리고 佛教類書인 寶唱·僧

12) 연소영, 「佛經의 地獄相 유형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76, 중국어문학연구회,

몯의 『經律異相』(516) 권49·50과 道世의 『法苑珠林』(668) 권7에는 각각 ‘地獄部’를 두어, 그 이전까지 한역된 지옥 관련 주요 경전의 내용을 발췌·정리하고 있다.

이들 불전은 대체로 지옥의 종류, 지옥행의 원인, 지옥에서의 징벌 양상, 징벌 이후의 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불전에 따라서는 2~3가지 항목만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이들 항목을 모두 서술하면 서도 지옥행의 원인이 보다 강조되어 있는 경우와, 징벌 양상에 관한 서술의 비중이 큰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경율이상』·『법원주림』의 ‘지옥부’와 『지장보살본원경』(이하 『지장경』)의 觀衆生業緣品 제3·地獄名號品 제5를 중심으로 불전에 나타난 지옥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지옥의 위치 및 종류에 대해 『경율이상』은 『장아함경』 권19의 「세기경」을 인용하여, “사천하의 바깥에는 팔만의 천하가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에는 큰 바다가 있으며, 바다 바깥에는 큰 金剛山이 있고, 이 산 바깥에는 또 다른 금강산이 있다, 이 두 산 사이의 日月의 광명이 비추지 않는 곳에 여덟 가지의 큰 지옥이 있다. …(중략)… 그 하나의 지옥에는 각각 열여섯의 작은 지옥이 있다.”<sup>13)</sup>라고 한 뒤, 想·黑繩·堆壓·叫喚·大叫喚·燒炙·大燒炙·無間的 8대지옥과 黑沙·沸屎·百釘·灰河·鐵丸·劍樹·寒氷 등의 16소지옥을 제시하고 있다. 망자는 첫 번째의 ‘想지옥’에서 징벌을 받고 그 악업이 다하면, 16소지옥 중의 첫 번째인 ‘흑사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곳에서부터 열여섯 번째 소지옥까지 벌을 받으며 지나가면, 자신의 악업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두 번째의 대지옥인 ‘흑승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열여섯의 소지옥을 두루 거치다가 세 번째 대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타의 불전에서 대체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망자들이 여러 지옥을 거

2012, 400~402쪽.

13) “四天下外有八萬天下而圍遶之 八萬天下外復有大海 海外復有大金剛山 山外復有山亦名金剛二山中間 日月神天威光不照 有八大地獄 …(中略)… 各有十六小地獄.” 僧旻·寶唱 等集, 『經律異相』 권49, 金剛山間八大地獄各有十六小獄 제11(出 長阿含經) (『大正新修大藏經』 53, 260中)

치면서 징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8대지옥과 16소지옥 외에도, 『지장경』은 염부제 동쪽에 위치한 철위산 안에 極無間·大阿鼻·叫喚·拔舌·糞尿 등의 45가지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sup>14)</sup> 『법원주림』은 18 지옥과 그 곳을 다스리는 18왕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sup>15)</sup>

지옥행의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불전들이 ‘五逆罪’와 ‘四種大罪’를 제시하고 있다. 5역죄는 부·모·아라한을 죽이고, 聲聞의 和合僧을 파괴하며, 악한 마음으로 부처의 몸에 피를 내는 죄를 가리킨다. 4종의 대죄는 살생·邪淫과 삼보의 재물을 훔치는 것, 그리고 邪見으로 승가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sup>16)</sup> 『지장경』에서도 부모를 죽이고, 부처 몸에 피를 내거나 불·법·승의 三寶를 비방하며, 함부로 음행을 행하거나 승가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였다.<sup>17)</sup> 그 외에, 지옥에 가는 이유로 惡口·兩舌·綺語·慳貪·嫉妬와, 보시를 하지 않거나 보시의 因果를 믿지 않는 것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sup>18)</sup>

‘징벌’의 경우는, 지옥의 위치·지옥행의 원인과 달리, 비록 비중의 차이

14) “地藏答言 …(中略)… 仁者 閻浮提東方 有山號曰鐵圍 其山黑邃無日月光 有大地獄 號極無間 又有地獄名大阿鼻 …(中略)… 更有叫喚地獄 拔舌地獄 糞尿地獄.” 實叉難陀 譯, 『地藏菩薩本願經』, 地獄名號品 제5 (『大正藏』 13, 781下)

15) “問地獄經云 十八王者 即主領十八地獄 一迦延典泥犁 二屈遵典刀山 …(中略)… 十七身典蛆蟲 十八觀身典洋銅.” 道世 撰, 『法苑珠林』 권7, 典主部 제5 (『大正藏』 53, 327上~中)

16) “十輪經云 有五逆罪爲最極惡 何者爲五 故心殺父母阿羅漢 破壞聲聞和合僧事 乃至惡心出佛身血 諸如是等名爲五逆. …(中略)… 復有四種大罪 同於四逆犯根本罪 何者爲四 殺辟支佛 是名殺生犯根本罪 淫阿羅漢比丘尼 是名邪淫犯根本罪 若人捨財與佛法僧 主掌此物而輒用之 是名爲盜犯根本罪 若人倒見破壞比丘僧 是名破僧犯根本罪.” 道世 撰, 『法苑珠林』 권7, 業因部 제7 (『大正藏』 53, 328上)

17) “若有衆生不孝父母或至殺害 當墮無間地獄 千萬億劫求出無期 若有衆生出佛身血 毀謗三寶不敬尊經 …(中略)… 或伽藍內恣行淫欲 …(中略)… 若有衆生偷竊常住 財物穀米飲食衣服乃至一物不與取者 當墮無間地獄千萬億劫求出無期.” 實叉難陀 譯, 『地藏菩薩本願經』, 觀衆生業緣品 제3 (『大正藏』 13, 779下~780上)

18) “以惡口兩舌綺語不義語 調戲無節誑說是非 說經典過毀論議師 …(中略)… 向國王大臣沙門婆羅門及一切衆 說施無因亦無果報 …(中略)… 以慳貪嫉妬邪見惡說 不施父母妻子眷屬及與一切 心生慳嫉見他得利如箭入心.” 僧旻·寶唱 等集, 『經律異相』 권50, 「十八小地獄各有十八獄圍繞阿鼻 제2(出 觀佛三昧法經) (『大正藏』 53, 264中~267上)

는 있지만 지옥 관련 경전에서 모두 빠짐없이 서술되어 있다. 『지장경』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죄인의 혀를 빼어 소가 갈게 하고, 죄인의 간을 내어서 夜叉에 먹이고, 펄펄 끓는 가마에 죄인의 몸을 삶으며, 벌겋게 단 구리쇠 기둥을 죄인이 안게 한다. 또 한결같이 차디찬 얼음뿐이며, 똥오줌이 넘치고, 쇠몽치가 날아들며, 불로 된 창으로 찌르고, 손과 발을 태운다.”<sup>19)</sup> 등의 묘사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지옥들의 이름은 해당 지옥에서의 징벌의 종류 내지 양상에 의해 명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黑繩지옥’에서는 여러 옥줄들이 죄인의 몸에 먹줄을 긋고 먹줄에 따라 도끼로 토막 내고 있으며, ‘堆壓지옥’은 큰 돌산이 죄인의 몸을 눌러 부서뜨리고, ‘燒炙·大燒炙지옥’에서는 죄인들을 쇠로 된 뜨거운 성 안에 넣고 태우거나 굽고 있는 것이다.<sup>20)</sup> ‘沸屎·鐵丸·劍樹·寒氷’ 등의 지옥 역시 그 명칭에 맞는 징벌이 행해지고 있다.

끝으로, 징벌 이후의 상황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불전은 많지 않은 편이다. 『불설철성니리경』·『중아함경』·『觀佛三昧法經』·『問地獄經』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sup>21)</sup> 『불설철성니리경』에서 죄를 지은 망자는 여덟 가지의 지옥을 모두 거친 뒤에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아함경』 권12의 「오천사경」과 『문지옥경』은 징벌의 과정을 통해 악업이 소멸된 망자들이 축생·餓鬼·修羅·人間·天의 5道에 태어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후자는 두꺼비·독사·개 등의 축생과 병어리·장님·

19) “或有地獄取罪人舌使牛耕之 或有地獄取罪人心夜叉食之 或有地獄鑊湯盛沸煮罪人身 或有地獄赤燒銅柱使罪人抱 或有地獄一向寒氷 或有地獄無限糞屎 或有地獄純飛鐵鏢 或有地獄多攢火槍 或有地獄但燒手足.” 實叉難陀 譯, 『地藏菩薩本願經』, 地獄名號品 제5 (『大正藏』 13, 782上~中)

20) “何故名黑繩 其諸獄卒捉彼罪人 撲熱鐵上 舒展其身以熱鐵繩絀之使直 以熱鐵斧逐繩道斫罪人作百千段. 何故名堆壓 有大石山兩山相對 人入此中 山自然合堆壓其身 骨肉糜碎山還故處 苦毒萬端故使不死. 何故名燒炙 將諸罪人置鐵城中 其城火然內外俱赤燒炙罪人.” 僧旻·寶唱 等集, 『經律異相』 권49, 金剛山間八大地獄各有十六小獄 제11(出 長阿含經) (『大正藏』 53, 261中~下)

21) 『문지옥경』은 현재 전하지 않는 경전으로, 『경율이상』과 『법원주림』에 일부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貧病人 등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습만을, 전자는 수라를 제외한 네 곳에 모두 태어나는 망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관불삼매법경』의 경우는, 『문지옥경』과 마찬가지로 축생과 人道로의 환생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문지옥경』·『중아함경』과 달리, 비록 한없이 오랜 시간이 경과된 이후의 일이지만, 결국은 선지식을 만나 ‘發菩提心’을 갖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아라한과 벽지불이 된다는 언급까지 보인다.<sup>22)</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지옥의 수효·명칭·징벌 양상 등은 불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불전들이 지옥행의 주요 원인으로 삼보에 대한 비방·훼손과 五惡<sup>23)</sup> 또는 十惡<sup>24)</sup>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전의 지옥은 비록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해도 자신의 악행에 대한 罪報가 다하면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회심곡>류 가사에 나타난 지옥의 모습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다음 장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 조선후기 불교가사의 지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파악된 조선후기의 불교가사는 57편이고, 이들 중 ‘지옥’의 시어가 등장하거나, ‘저승길’·‘시왕의 심판’·‘징벌’의

22) “罪畢乃出墮在畜生 五百世中有供衆口 復五百世受卑賤形 後遇善知識發菩提心. … (中略)… 罪畢乃出生貧賤 …(中略)… 遇善知識出家學道成阿羅漢. …(中略)… 罪畢之後得生人中 貧窮下賤 覺世非常出家學道 時世無佛成辟支佛.” 僧旻·寶唱 等集, 『經律異相』 권50, 十八小地獄各有十八獄圍繞阿鼻 제2(出 觀佛三昧法經) (『大正藏』 53, 264中~265中)

23) 5악은 재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인 5戒를 어긴 것으로, 살생·偷盜·邪淫·妄語·飲酒를 가리킨다.

24) 10악은 身·口·意로 짓는 10가지의 악업을 뜻한다. 먼저, 몸으로 짓는 악업으로 살생·투도·사음, 입으로 짓는 악업으로 妄語[거짓말]·兩舌[이간질하는 말]·惡口[괴롭히는 말]·綺語[속이기 위해 꾸미는 말], 마음으로 짓는 악업으로 貪欲·瞋恚·邪見 등이 있다.

지옥 관련 화소가 포함된 작품은 21편이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이들 작품의 제목과 수록문헌 및 판본 등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지옥’ 관련 조선후기 불교가사

	작품	작자	출전	판본	비고
1	歸山曲	枕肱懸辯	『침굉집』 (1695)	목판본	국한문 혼용 표기.
2	西往歌	미상	『보권염불문』 (1704)	목판본	순한글 표기. 『보권염불문』에 그 제목이 ‘나옹화상서왕가’로 되어 있어, 작자를 懶翁 惠勤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3	因果文	미상	『보권염불문』 (1704)	목판본	순한글 표기.
4	回心歌	미상	『보권염불문』 (1764)	목판본	순한글 표기. 작자를 淸虛 休靜 또는 箕城 快善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5	勸佛歌	미상	『불교가사』 (1887)	필사본	순한글 표기. <회심가>의 이본.
6	地獄道頌	智瑩	『수선곡』 (1795)	목판본	순한글 표기. 《전설인과곡》의 제2송. 『佛說六道伽陀經』의 번역.
7	天道頌	智瑩	『수선곡』 (1795)	목판본	순한글 표기. 《전설인과곡》의 제6송. 지옥에 관한 부분은 『問地獄經』의 번역.
8	夢幻歌	미상	『영암화상토굴가』 (1889)	필사본	순한글 표기.
9	勸往歌	東化竺典	『권왕문』 (1908)	목판본	순한글 표기.
10	往生曲	미상	『불설멸의경』 (연대미상)	필사본	<권왕가>의 이본.
11	自責歌	미상	『권왕문』 (1908)	목판본	순한글 표기.
12	僧元歌	미상	『나옹화상승원가』 (연대미상)	필사본	이두 표기. <자책가>의 이본. 작자를 나옹 해근으로

	작품	작자	출전	판본	비고
					보는 견해가 있음.
13	六度歌	미상	『육도가라』 (연대미상)	필사본	순한글 표기.
14	白髮歌	미상	『서방금곡』 (1931)	필사본	국한문 혼용 표기.
15	別回心曲	미상	『별회심곡』 (연대미상)	활자본	순한글 표기.
16	善心歌	미상	『불교가사』 (1887)	필사본	순한글 표기.
17	特別回心曲	미상	『악부』 (1930~34)	필사본	국한문 혼용 표기.
18	喚懺曲	미상	『환참곡』 (연대미상)	필사본	순한글 표기.
19	續回心曲	미상	『악부』 (1930~34)	필사본	순한글 표기.
20	四諦歌	미상	『서방금곡』 (1931)	필사본	국한문 혼용 표기.
21	無量歌	미상	『무량가』 (연대미상)	필사본	순한글 표기.

지옥 관련 불교가사는 17세기에 1편, 18세기에는 5편,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19세기에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작자를 알 수 없으며, 필사본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도표 15~21 번의 작품들은 학계에서 이른바 ‘<회심곡>류 불교가사’로 부르고 있는데, 이들 가사는 1800년대 민중예술의 발흥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연출된 대중적인 노래로, 인생무상·저승길의 여정·善人에 대한 보상과 惡人에 대한 응징이라는 공통된 내용 전개를 보인다.<sup>25)</sup>

위의 도표에서 제시한 21편의 작품들은 지옥 관련 화소의 유무 여부와 내용적 경향성에 따라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옥 관련 화소가 없고 ‘지옥’의 시어만이 등장하고 있는 작품들.

25) 김종진, 앞의 책, 143~147쪽.

<귀산곡> <서왕가> <회심가> <권불가> <백발가> (5편)  
 둘째, ‘징벌’의 양상과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 작품들. <지옥도송> <천도송> <권왕가> <왕생곡> <자책가> <승원가> <육도가> (7편)  
 셋째, ‘저승길의 여정’·‘시왕의 심판’·‘지옥의 징벌’ 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작품들. <인과문> <몽환가> <별회심곡> <선심가> <특별회심곡> <환참곡> <속회심가> <사제가> <무량가> (9편)

### 3.1. 시어로서의 ‘지옥’

첫째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 중, 침굉 현변(1616~1684)의 <귀산곡>은 『침굉집』에 수록된 <태평곡>·<청학동가>와 함께,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된 불교가사 작품이다. 이 가사는 청자로 설정된 승려들에게 참선 수도에 정진할 것을 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 화자는 염불과 참선을 우습게 여기고 ‘外事’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청자에게 “此身 문득주거 八寒八熱 諸地獄애/ 다주겨 든니며 無限苦痛 受할時예/ 南方教主 地藏大聖 六環杖을 둘러잡고/ 가슴을 헤글며 눈물을 증흘려도/ 救濟할 方이업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옥’의 시어는 출가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청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염불하지 않는 중생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는 <서왕가> 또한 “세스만 탐착호야 이욕의 즘것논” 청자들에게 애욕에서 벗어나 ‘諸種善根’을 심지 않는다면 “셔왕은 머러지고 지옥은” 가까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회심가>에서도 화자는 청자의 ‘무흔(無限) 탐심(貪心)’·‘진심(瞋心)’·‘악상(惡想)’을 경계하면서, “도산검슈 체디옥에 만반고통 슈할째예/ 디장보살 대원인들 더를엇디 구데홀고”라고 노래하고 있다. <회심가>의 이 구절은 제시되어 있는 지옥의 이름만이 다를 뿐, <귀산곡>의 밑줄 친 부분과 거의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회심가>의 이본인 <권불가>에서도 “도산금수 저지옥이 만반고통 밧을적이/ 지장보살 디원흔들 굿씩어이 지도하며”라고 되어 있다.

이렇듯 첫째 유형의 작품들은 八寒·八熱·刀山·劔樹지옥 등의 시어를 통

해 세상사에만 貪着하고 貪·瞋·癡의 三毒에 빠져 있는 청자들을 경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청자들이 참선 또는 염불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 3.2. 징벌의 양상과 그 이유

둘째 유형의 <지옥도송>과 <천도송>은 印慧信士<sup>26)</sup> 지형이 지은 《전설인과곡》에 수록되어 있다. 제목 아래에 ‘出 六道伽陀經’의 부기가 있는 《전설인과곡》은 <서곡>·<지옥도송>·<방생도송>·<아귀도송>·<인도송>·<천도송>·<별창권락곡> 등 7편의 가사가 하나로 합쳐진 연작가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육도가타경’은 宋 法天 譯의 『佛說六道伽陀經』을 가리키는 것으로, 地獄品·傍生品·餓鬼品·人趣品·修羅品·天趣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옥도송>은 「지옥품」의 내용을 가사체로 충실히 옮기고 있는데, 14가지의 지옥 종류와 해당 지옥에서의 징벌 양상 및 이유 등을 노래하고 있다. 곧 “그른법을 일을삼아 여러인을 어즈레면/ 극열옥의 몸살미물 굶핍업시 고통호고” “우양축싱 제싱명을 죽여먹기 도하호면/ 중합옥의 썩러져서 중태산이 부딪티니/ 식신골절 바아는듯 망극고통 무량호고”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sup>27)</sup>

그런데, <천도송>은 「천취품」 외에도, 『능엄경』·『장아함경』·『원각경』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천도’가 아닌 지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6) 지형의 또 다른 작품인 <참선곡>의 말미에는 “甲寅 孟冬 法性山 無心客 印慧信士 智瑩 述”이라는 기록이 있다.

27) 참고로, 이들 구절에 해당하는 저경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修習非法行 惱亂於大衆 說彼無有盡 墮彼極炎熱 入此惡道已 熾極火燒煮 熱苦受長時” “猪羊狼兔等 及餘諸物命 如是行殺害 而墮於衆合 墮彼惡趣已 衆山合身碎 痛苦不可當” 法天譯, 『佛說六道伽陀經』(『大正藏』 17, 453上)

(1)

[가] 천도송을 들어보소 텃상복락 브랄딘디 / 세간명리 친척권속 활활이 썰썰리고  
중품하품 지계하면 스왕턴의 락을밧고 / …(중략)…

상근지혜 유정인은 지계또흔 최상이라 / 공덕선이 최승하니 화즈지턴 락을밧고

[나] 녀인힝스 죄상보소 얼골단장 몸치레로 / 남의남즈 피힌압히 도라보며 옷쓰은죄  
조창옥의 썬러지니 사오나온 옥졸들이 / 조창꺾의 신어너야 고옥상이 무랑호외  
스장부모 부르느말 즉시디답 아니호고 / 병얼옥의 썬러지니 무서온 옥졸들이  
쇠를다뤄서 디지니 초통스를 널을손가 / 이빅세후 사름되나 병얼언청 되거구나  
…(중략)…

부모스장 꺾치물 고성호야 디답호고 / 용동옥의 썬러져서 쇠녹인물 목욕하니  
녹느고상 난당이오 죄필후에 사름되나 / 연어성이 분명찬코 손뵈단코 경척보면  
도희옥의 썬러져서 밍학흔 옥졸들이 / 두손목을 베즐으니 혼빅정신 훗허지고  
직물두고 앓겨쓰면 우느옥의 썬러져서 / 옥귀신이 피야들어 시다리며 장울니니  
진덩홀썬 전혀업고 최후싱에 사름된들 / 곤고상이 즈심호고 즐거울썬 바히업닌<sup>28)</sup>

인용문 (1)의 [가]는 『육도가타경』의 「천취품」을 저본으로 한 부분이고,<sup>29)</sup> [나]는 『육도가타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다. 비록 ‘천도송’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작품은 [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천도에 왕생하더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고 악업을 행하면 지옥·축생 등에 태어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나]는 바로 이러한 ‘善因善果’에서 다시 ‘惡因惡果’의 내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락에 해당한다. 이 단락은 『경율이상』 소재 『문지옥경』의 관련 부분을 번역한 것으로, <지옥도송>과 달리 몇몇 지옥의 명칭이 저경과 다르고, 각 지옥에 관한 서술 내용의 순서에 변화를 주고 있다. 곧 인용문의 병얼옥·용동옥·도희옥·우느옥은 저경에는 각각 唾鬼·飮洋銅·刀解手·啼哭지옥으로 되어 있고,<sup>30)</sup> 저경의 ‘징벌 양상→ 지옥행의 이유→ 징벌 이후의 상황’이 <천도송>에서는 ‘지

28) 지형, <천도송> (임기중, 앞의 책, 136~138쪽)

29) “棄名利歡樂 遠離於親眷 持禁中下品 生彼四王天 …(中略)… 上根有情類 持戒亦最上 功德超越前 生他化自在.” 法天 譯, 『佛說六道伽陀經』 (『大正藏』 17, 454 下~455上)

30) 인용하지 않은 <천도송>의 ‘비리옥’·‘징취옥’·‘털아옥’·‘축루옥’ 등의 이름도 『문지옥경』에는 각각 ‘沸屎’·‘臙臭’·‘鐵杵’·‘觸儒’ 등으로 되어 있다.

옥행의 이유→ 징벌 양상→ 징벌 이후의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도송>의 [나] 단락은 『문지옥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64가지의 지옥 가운데 제7~12·20·36·39·50·54·58·59의 13가지 지옥만을 노래하고 있어 주목된다.<sup>31)</sup> 이들 지옥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옥행 내지 징벌의 이유는 대부분 여자 또는 재가자와 관련이 있다. “얼굴 단장과 몸치장으로 남의 남자 모인 앞에 돌아보며 옷을 끈 죄”는 ‘조창옥’에 떨어지고, “부모·스승·어른들이 부르는 말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면 ‘병어리 지옥’으로 가며, “재물을 두고 아껴 쓰면” ‘우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용문 [나]의 서두인 “녀인헝스 죄상보소”에서 이미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저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천도송>에서 노래되지 않은 『문지옥경』의 지옥들은 대체로 부모·스승·아내·남편을 살해하거나 새·물고기·가축 등을 죽이는 ‘살생’을 징벌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율을 범하거나 삼보를 훼손한 죄목의 비중 또한 작지 않다. 곧 <천도송>은 저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지옥행의 원인 중, 비교적 재가자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만을 뽑아 노래한 것이 된다.

이러한 번역상의 특징은 무엇보다 작가인 지형의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형은 재가자인 거사로, 《전설인과곡》 외에도 《권선곡》·<수선곡>·<참선곡> 등의 가사작품을 남기고 있다. 이들 작품은 경기도 양주의 불암사에서 개간한 목판본으로 전하는데, 지형은 가사작품의 창작뿐만 아니라 많은 경전의 판각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5편의 가사로 구성된 《권선곡》에는 재가신자를 대상으로 한 <在家勸曲>·<貧人勸曲>이 있고, <수선곡>은 ‘빈가녀즈’를 포함한 재가신자들이 세속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다.<sup>32)</sup> 또한 지형이 주관하여 판각한 불암사 판본

31) 지면 관계상 인용문 [나]의 ‘조창옥’·‘병어리’에 해당하는 저경의 원문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七曰竈窓 獄卒以人倒內竈窓中 此女生時 以顧影衣裔他男子. 八曰唾鬼 獄常燒鐵鎔烙其舌 生時父母及師喚之不應 經二百歲後生爲啞人.” 僧旻·寶唱 等集, 「六十四地獄舉因示苦相 卷3(出 問地獄經)」, 『經律異相』 권50 (『大正藏』 53, 267上)

의 시주질에는 많은 ‘淸信女’들의 이름이 보인다.<sup>32)</sup> 결국 <천도송>은 지형의 다른 가사와 마찬가지로 여성 재가자를 주요 청자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 재가자와 관련된 佛典의 내용만을 선택하여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호싱오스 호는마음 나와져와 일반인티 / 너욕심을 치우라고 남의목숨 죽이오니  
 형세강약 부동하야 죽인바를 입스오나 …(중략)…  
 검수도산 저지옥에 근단골절 멧변하며 / 화탕노탄 저지옥에 혈육초란 슈잇던가  
 지옥고를 필흔후에 피모디각 녹축되야 / 목숨빗줄 갑풀적에 나는한번 죽여싼만  
 갑는슈는 무슈흔들 슈원슈구 한을홀쇼 …(중략)…  
 입으로 짓는허물 몰난결에 가증만트 / 발설지옥 고를보쇼 혀를썩여 밧출가니  
 거죽말노 남속일까 …(중략)…  
 술의허물 업실진딘 성인이 금홀손가 / 쏹과오짐 썰는지옥 저고통이 무셔위라  
 …(중략)…  
 만일스견 일어켜서 선악인과 불신하면 / 무간지옥 들어가셔 천불출세 흐드라도  
 나올기약 바히업너<sup>34)</sup>

(3)

윤회녹취 못면하고 민반고통 반난중싱 / 자기지혜 아니닥고 살싱투도 너지사음  
 괴어망어 양설약구 탐심진심 너지치심 / 갓초갓초 죄을지어 지옥가며 아귀가며  
 너지축싱 모도싸져 나올기약 아조업고 / 일일일야 만싱만사 무한고통 밧사오되  
 검국도료운 운우갓치 허공으로 너러와셔 / 죄인몸을 치벌하되 철사철구 철나귀와  
 우두마면 모진사직 서썩이며 눈썩이며 / 펄펄살난 화탕디옥 뒤적뒤적 살머너고  
 살여씨가 죽여씨가 하로만번 년년여시 / 너지겍이 지나가도 나올기약 아조업너<sup>35)</sup>

32) 김기중, 「지형 가사의 성격과 의의」, 『한국 불교시가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14, 203~205쪽.

33) 지형이 주관하여 판각한 『佛說高王觀世音經』(1795)의 施主秩에 기록된 35인의 명단을 보면, 淸信士 3명, 信男 1명, 行信男 1명, 引勸信士 1명, 淸信女 16명, 비구니 3명, 동자 1명, 동녀 1명이다. 불암사 판본의 다른 경전의 판각 후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김종진, 앞의 책, 34쪽.

34) 동화 축전, <권왕가> (임기중, 앞의 책, 281~283쪽)

35) 작자 미상, <육도가> (임기중, 앞의 책, 382쪽)

위의 (2)는 동화 축전(1825~1854)의 <권왕가>, (3)은 작자미상의 19세기 가사인 <육도가>이다. 인용문 (2)를 통해 <권왕가>는 劍樹·刀山·鑊湯·爐炭·拔舌·糞尿·無間지옥 등의 7가지 지옥과, 이들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 및 그곳에서의 징벌 양상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살아생전에 사람을 죽인 망자는 검수·도산지옥에서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징벌을, 확탕·노탄지옥에서는 온몸이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받으며, 징벌이 끝난 뒤에는 소·양·개·돼지 등의 가축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입으로 짓는 허물’·‘술의 허물’·“邪見으로 선악의 인과를 믿지 않으면” 각각 발설·분뇨·무간지옥에서 혀를 뽑히고, 똥·오줌에 빠지며, 千佛이 세상에 있어도 빠져나올 기약이 없는 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살생·妄語·음주 등의 죄목들은 佛典에서 지옥행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던 ‘五惡’에 다름 아니다.

인용문 (3)의 경우는, ‘확탕지옥’만이 나타나 있고, 지옥에 가는 이유로 殺生·偷盜·邪淫·欺語 등 ‘十惡’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징벌의 양상에 있어서는 칼과 창이 하늘에서 빗발치듯 쏟아지고, 철힌로 된 뱀·개·나귀와 牛頭馬面의 使者들에게 혀와 눈을 뽑히며, 펄펄 끓는 큰 솥에서 삶아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둘째 유형의 작품들에서 묘사·제시하고 있는 징벌의 양상과 지옥행의 이유는 ‘佛典 속 지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다음에서 살펴볼 셋째 유형의 작품들은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 3.3. 시왕의 심판과 지옥의 징벌

(4)

[가] 세스만 탐착하고 번노중에 잠겨서 / 인연선종 부모효양 넘볼동참 불공보시  
 우이너겨 불연못된 사름드라 명목출 / 그날애 넘나대왕 보내오신 인로스자  
 네다스시 혼손애 쇠채들고 또 혼손애 / 한도들고 두문전 가르집고 어서나라  
 수이나라 직촉허거든 뉘말이라 거슬손고 …(중략)…

[나] 시왕께 잡혀드러 추열다짐 시비장단 / 가지가지 무르실제 인간애 디은죄는

염나대왕 업경디에 낫낫치 비취엿고 / 데석궁 나망중에 낫낫치 어르여시니  
 어디가 혼말이나 거죽다짐 흐올손고 / 내넙으로 스톤후에 그뉘라셔 구제홀고  
 [다] 팔만스천 무간디옥 철위성도 노프실샤 / 쇠문안 드리드라 목버히며 혀뺨며  
 굽거니 뺨거니 셔거니 썩거니 / 가지가지로 다스리니 아아아야  
 우는 소리는 오늑월 가운데 / 억머구리 소리로다 이흐몸 가지고  
 빅천가지 곳쳐되여 대고통 슈홀저기 / 그엇지 아니 설올손고 목물나라  
 울저기 구리쇠 노긴물 머기시고 / 빅고파라 울저기 몽동철환 삐피시고  
 흐르도 열두시오 흐들도 설흔날에 / 일만번을 주기시고 일만번을 사로시니<sup>36)</sup>

(5)

[A] 평싱적악 무슈한다 김싱줍아 슬싱홀고 / 직물의 탐심너여 비레지직 탈취한다  
 시가지심 이러두어다가 무죄인을 모함홀기 / 공문의 외방홀여 준민을 고퇴홀고  
 즈고씨면 직물싱각 먹고나면 영화싱각 / 빅연도 못솔거술 만연이나 스톤드시  
 쥬야의 여가업시 분분이 지너다가 / 명한이 당두홀니 속절업시 죽을디의  
 염나디왕 부전칙스 감즈사즈 쥬부사즈 / 왕명을 피시압고 번기갓치 달여드러  
 여셔가즈 직촉홀니 위염이 상설갓다...(중략)...

[B] 좌우을 슬퍼보니 명부가 여기로다 / 열시왕님 좌정홀고 관관지왕 여렴후의  
 인간이셔 지은적악 쥬고를 바들적의 / 업경디가 분명홀니 쥬호나 속일손가  
 평싱의 지은적악 낫낫치 닛타나셔 / 지옥으로 제슈홀니

[C] 우두나찰 마두나찰 나는다시 달여드러 / 창삿세 썩여들고 확탕지옥 쓸는물의  
 너어다가 너여노홀니 전신의 유헬이요 / 혼비빅스 절노된다 하로밤 하로날의  
 만번죽고 만번살며 만번고통 바들제 / 후회현들 무엇홀라<sup>37)</sup>

인용문 (4)·(5)는 셋째 유형의 <인과문>과 <몽환가>로, 이 두 작품은 모두 저승길의 여정·시왕의 심판·지옥의 징벌 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인용문의 [가]·[A], [나]·[B], [다]·[C] 단락은 각각 이들 화소에 해당한다. [가]와 [A]는 염라대왕이 보낸 使者들이 망자의 저승길을 재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나]·[B]에서 시왕 앞에 끌려온 망자는, 業鏡臺에 비취진 생전의 죄업으로 인해 지옥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들 작품의 ‘저승길’·‘심판’ 단락은 이처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옥의 종류 및

36) 작자 미상, <인과문> (임기중, 앞의 책, 96~98쪽)

37) 작자 미상, <몽환가> (임기중, 앞의 책, 502~504쪽)

징벌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인과문>의 [다]는 무간지옥을, <몽환가>의 [C]는 확탕지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가 확탕지옥에서의 징벌을 “끓는 물에 넣었다가 내어놓으니 전신에 피가 흐르고 혼비백산 절로 된다”라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반면, 전자는 “목을 베고 혀를 뽑으며 (몸을) 굽고 삶고 쪼고 빼며”, “목마르다고 울적에 구리쇠를 녹인 물을 먹이고”, “배고프다고 울적에는 鐵丸을 씹게 한다”라고 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편, <인과문>과 <몽환가>는 둘째 유형의 가사들과 달리, 지옥행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저승길’ 단락에는 지옥행의 이유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눈에 띈다. 인용문 (4)의 [가]는 “困緣 善從 父母孝養 念佛同參 佛供布施/ 우습게 여겨 佛緣 못맨 사람들아”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바로 ‘인연선종’·‘부모효양’·‘염불동참’·‘불공보시’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간지옥에 떨어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몽환가>의 경우는, [A] 단락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망자가 평생 동안 저지른 악행의 항목을 서술하고 있다. 곧 ‘① 짐승을 잡아 살생함. ② 재물에 탐심을 내어 非禮之財를 탈취함. ③ 시기하는 마음으로 무죄인을 모함함. ④ 공자의 道에서 벗어나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착취함. ⑤ 부귀영화만을 생각함’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옥행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이들 항목 중, ④의 “孔門에 外方하여 浚民을 膏澤함”은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교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은 <회심곡>류 가사에서 보다 확대되어 나타난다.

(6)

[가]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광대왕 /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광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륙전에 방성대왕 /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십전에 전륜대왕 / 열시왕의 부린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의 명을바다 한손에 창검들며 / 한손에 철봉들고 쇠시슬을 빗겨차도  
활동갓치 굽은길로 살대갓치 달려와서 / 다든문을 박차면서 뇌성갓치 소래하도  
성명삼자 불러내여 어가가자 빗비가자 …(중략)…

[나] 남자죄인 잡아들여 형벌하며 무는말이 / 이놈들아 드리보라 선심하랴 발원하고  
 인세간에 나아가서 무삼선심 하여는가 / 바른대 아뢰여라 용방비간 뺨을바다  
 남금남계 극간하여 나라에 충성하며 / 부모님 효도하여 가뼀을 세웠시며  
 배곯흔이 밥을주어 이사구제 하였는가 / 헐벗은이 옷을주어 구란공덕 하였는가  
 조흔곳에 집을지어 행인공덕 하였는가 / 김흔물에 다리노아 월천공덕 하였는가  
 목마른이 물을주어 급수공덕 하였는가 / 병든사람 약을주어 활인공덕 하였는가  
 늙흔산에 불당지어 중생공덕 하였는가 / 조흔밭에 원두심어 행인해갈 하였는가  
 부처님께 고양들여 마음다고 선심하야 / 녀불공덕 하였는가 어진사람 모해하고  
 불의행사 만히하며 탐재함이 극심하니 / 너의죄목 엇지하리 죄악이 심중하니  
 풍도옥에 가두리라...(중략)...

남자죄인 처결한후 너자죄인 잡아들여 / 시부모와 친부모께 지성효도 하였느냐  
 동생형열 우애하며 친척화목 하였느냐 / 괴악하고 간특한년 부모말삼 거역하고  
 동생간에 이간하고 형제불목 하게하며 / 세상간악 다부리며 열두시로 마음변화  
 못듯는대 욕을하고 마조안저 우슴낙담 / 군말하고 성내는년 남의말을 일삼는년  
 시긔하긔 조와한년 풍도옥에 가두리라

[다] 죄목을 무른후에 온갖형벌 하느구나 / 차례대로 처결할제 도산지옥 화산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발서지옥 독사지옥 / 아침지옥 거해지옥 각처지옥 분부하야  
 모든죄인 처결한후<sup>38)</sup>

위의 (6)은 <회심곡>류 불교가사 중의 하나인 <별회심곡>을 읊긴 것이다. 인용문의 [가]·[나]·[다]는 각각 ‘저승길’·‘심판’·‘징벌’에 해당한다. 먼저, 저승길 단락의 [가]에는 시왕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시왕의 나열’은 <회심곡>류 가사의 모든 작품에 보이는 공통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회심곡>류 가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왕의 명칭은 唐의 沙門 藏川이 찬술한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이하 『시왕경』)에 근거한 것으로,<sup>39)</sup> 이 경전은 시왕신앙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시왕경』은 석가불이 염라대왕에게 미래에 普賢王如來가 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과, ‘預修十王七

38) 작자 미상, <별회심곡> (임기중, 앞의 책, 393~399쪽)

39) 『시왕경』에는 시왕의 명칭이 제1 秦廣大王, 제2 初江大王, 제3 宋帝大王, 제4 五官大王, 제5 閻羅大王, 제6 變成大王, 제7 泰山大王, 제8 平等大王, 제9 都市大王, 제10 五道轉輪大王으로 되어 있다.(『新纂大日本續藏經』 1, 409中~下) 인용문 (6)의 ‘초광대왕’·‘오광대왕’·‘방성대왕’은 각각 ‘초강대왕’·‘오관대왕’·‘변성대왕’의 誤記이다.

齋'의 공덕을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망자를 심판하는 시왕의 명칭 및 심판의 시기에 관한 내용<sup>40)</s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의 논의에서는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신앙적·사상적 기반으로 시왕신앙 내지 시왕사상이 지적되어 왔다.<sup>41)</sup> 그러나 『시왕경』에는 시왕이 망자의 죄를 심판하고 그 죄에 따라 지옥으로 보낸다는 언급만 있을 뿐, 인용문 [나]와 같은 심문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지옥에서의 징벌 양상 또한 서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시왕 중 다섯 번째 왕인 염라대왕이 業鏡을 통해 망자의 생전 일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sup>42)</sup> 앞에서 살펴본 <인과문>·<몽환가>의 '시왕의 심판' 단락은 『시왕경』의 이 부분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시왕경』은 시왕의 심판과 지옥의 징벌보다는, 지옥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 곧 시왕을 위한 '齋供養'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sup>43)</sup>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관심 내지 지향과는 차이가 있다. <회심곡>류 가사는 심판 내지 심문의 항목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왕의 명칭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시왕을 향한 어떠한 기원의 내용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논의처럼 시왕사상을 <회심곡>류 가사의 사상적 기반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용문 (6)의 [나]는 '시왕의 심판' 단락 중, 시왕이 명부에 도착한 망자를 심문하는 부분이다. 인용문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죄인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 뒤, 남자죄인에게는 '~하였는가'라는 심문 형식을 통해 선행의 덕목을, 여자죄인에게는 심문의 형식 없이 악행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남녀의 구분 없이 선행의 덕목만을

40) 『시왕경』에 따르면, 망자는 初七日에는 진광왕, 二七日에는 초강왕, 三七日에는 송제왕, 四七日에는 오관왕, 五七日에는 염라왕, 六七日에는 변성왕, 七七日에는 태산왕, 백일째는 평등왕, 일년째는 도시왕, 삼년째는 오도전륜왕에게 차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41) 이승남, 앞의 논문, 245~246쪽; 김종진, 앞의 책, 220~221쪽; 김동국, 앞의 책, 250~252쪽.

42) 『시왕경』의 제5 염라대왕에 관한 계송에 “五七閻王息諍聲 罪人心恨未甘情 策髮仰頭看業鏡 始知先世事分明”(『卍續藏』1, 409下)라고 되어 있다.

43) 김정희, 앞의 책, 102쪽.

노래하고 있는 <사제가>·<무량가>를 제외한, 여타의 <회심곡>류 불교가사에서도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별회심곡>은 선행의 덕목으로 충성·효도·餓死救濟·救難功德·行人功德·越川功德·給水功德·活人功德·衆生功德·行人解渴·念佛功德 등의 11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아사구제’부터 ‘행인해갈’까지의 항목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행’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지옥 관련 불전에서 지옥행의 원인으로 삼보에 대한 ‘不布施’를 제시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보시행’의 구체적인 대상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행’과 관련된 이들 항목은 다른 <회심곡>류 가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선심가>는 ‘행인해갈’, <무량가>는 ‘행인공덕’·‘행인해갈’의 항목이 빠져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보시’ 이외의 덕목들은 작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곧 <특별회심곡>은 ‘노인공경’, <사제가>는 ‘一家救濟’·‘同生厚德’·‘朋友有信’·‘治民善政’, <속회심곡>·<환참곡>은 각각 ‘동기우애’·‘친척화목’·‘共濟國事’와, ‘노인공경’·‘兄友弟恭’·‘夫和婦順’·‘朋友有信’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은 인용문 [나]의 밑줄 친 부분처럼, 대체로 ‘三綱五倫’을 포함한 유교적 윤리 덕목에 해당한다.

여자죄인의 경우는, 지성효도·친척화목의 ‘선행’과 부모 말씀 거역하기, 兄弟不睦, 열두시로 마음변화, 안 듣는 데에서 욕을 하고 마주 앉아 樂談하기, 군말하고 성내기, 남의 말 일삼기, 시기하기 등의 ‘악행’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중, ‘군말하고 성내기’·‘남의 말 일삼기’ 등 ‘말’과 관련된 항목들은 불교의 ‘10악’ 가운데 입으로 짓는 악업인 ‘妄語·兩舌·惡口·綺語’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들은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남자죄인의 ‘선행덕목’과 마찬가지로, 유교사회에서 지켜야 하거나 범해서는 안 되는 일상적인 윤리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별회심곡>의 여성 관련 항목들은 <선심가>·<특별회심곡>에서도 항목의 가감 없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속회심곡>과 <환참곡>은 각각 22항목과 19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13항목,<sup>44)</sup> 후자는 10항목<sup>45)</sup>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추가된 항목들 역시 일상적인 윤리 규범에 해당한다.

끝으로, 인용문 (6)의 [다]는 지옥행의 원인에 관한 [나]의 서술이 확장되어 있는데 비해, 현저하게 축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곧 <별회심곡>의 ‘징벌’ 단락은 刀山·火山·寒氷·劍樹 등의 지옥 이름을 열거한 뒤 “각처지옥 분부하여 모든죄인 처결한후”라고 하여, 징벌의 양상은 생략하고 그 결과만 노래하고 있다. 징벌 화소의 축소는 여타의 <회심곡>류 가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속회심곡>만 유일하게 12가지의 지옥 이름과 함께, “단근허고 혀를썩여 저울츄의 다라보며/ 몸을쭈서 피를너여” “기름스려 살무면서/ 소청이로 뒤져기니”라는 징벌의 양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둘째 유형의 작품들과 비교할 때, 이 작품 역시 ‘징벌’의 화소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제가>와 <무량가>의 경우는, 징벌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옥의 이름까지 보이지 않고, 다만 심문이 끝난 죄인들을 ‘豐都地獄’에 가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풍도’는 도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하나로, 死者가 사는 세계를 뜻하는 중국 고유의 관념을 도교에서 수용한 것이다.<sup>46)</sup> 이들 작품을 제외한 <회심곡>류 가사에는 ‘풍도지옥’이 아닌 ‘풍도옥’으로 되어 있고, 인용문의 [나]에서 보듯이, 시왕의 심판이 끝난 죄인들은 일단 ‘풍도옥’에 갇힌 뒤, 각각의 지옥에 보내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곧 <사제가>

44) 참고로, <속회심곡>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정성으로 가장 섬겨 열녀 말을 들음. ②배고픈 이에게 밥 주기. ③서방 속이기. ④큰어미에게 아침하기. ⑤세간살이를 알뜰하게 하여 칭찬을 들음. ⑥작은 어미 미워하기. ⑦남의 재물 욕심내기. ⑧남의 재물 탈취하기. ⑨제 것 같이 갖다 쓰고 쓴 후 안 주기. ⑩남자보고 흠모하기. ⑪없는 죄를 지어내기. ⑫험담패설 지어내기. ⑬부엌에서 오줌누기. (임기중, 앞의 책, 437쪽)

45) <환참곡>의 추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동기우애. ②남의 재물 욕심내기. ③도적질하기. ④부엌에서 소피하기. ⑤없는 말로 모함하기. ⑥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못할 일 다 시키기. ⑦자신이 번번이 틀리지만 威力으로 말을 하여 제가 옳고 남은 틀리다고 함. ⑧밤낮 없이 남 잡을 생각만 하기. ⑨남에게는 거짓말 하고 자신은 참말 듣기 좋아하기. ⑩거짓말을 끌어다가 틀린 말을 옳다고 하기. (임기중, 앞의 책, 468~469쪽)

46) 최수빈, 「도교에서 바라보는 저 세상」, 『도교문화연구』 41,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325쪽.

<무량가>를 포함한 <회심곡>류 가사에서의 ‘풍도’는 징벌의 장소라기보다는 죄인을 잠시 가둬두는 감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관심 내지 지향이 ‘지옥의 징벌’보다는 ‘지옥행의 이유’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옥행의 이유로 유교사회에서 범해서는 안 되는 일상적인 윤리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회심곡>류 가사를 여타의 불교가사와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4. 지옥 형상화의 성격과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옥을 노래하고 있는 조선후기 불교가사는 지옥 관련 화소의 유무 여부와 내용적 경향성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유형은 지옥 관련 화소가 없고 ‘지옥’의 시어만이 등장하고 있는 작품들로, 가장 이른 시기의 불교가사인 17세기의 <귀산곡>과 18세기의 <서왕가>·<회심가> 등이 해당한다. 이들 작품은 팔한·팔열·도산·검수지옥 등의 시어를 통해 세상사에 탐착하고 탐·진·치의 三毒에 빠져 있는 청자들을 경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청자들이 참선 또는 염불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다.

둘째 유형은 ‘징벌’의 양상과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육도가타경』·『문지옥경』을 각각 가사체로 옮긴 <지옥도송>·<천도송>과 <권왕가>·<육도가> 등의 가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지옥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징벌의 이유로는 살생·망어·음주·사견 등의 5악 내지 10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에 나타난 ‘지옥’은 ‘불전 속의 지옥’과 큰 차이가 없다.

셋째 유형은 ‘저승길의 여정’·‘시왕의 심판’·‘지옥의 징벌’ 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가사들이 해당한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징벌’ 화소의 축소 여부에 따라 <인과문>·<몽환가>와, <회심곡>류 불교가사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둘째 유형의 작품들에 못지않게 징벌의 양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살생·탐욕·시기 등이 징벌을 받는 이유로 제시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시왕의 심판을 받는 죄인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 뒤, 남자죄인에게는 선행의 덕목을, 여자죄인에게는 악행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의 덕목과 악행의 항목들에는, ‘보시행’ 및 ‘망어·양설·악구·기어’ 등의 불교적 윤리 규범과, ‘삼강오륜’을 포함한 유교적 윤리 규범이 공존하고 있다. <회심곡>류 가사에서 지옥의 징벌 화소가 현저하게 축소된 것은, 이들 가사의 지향 내지 관심이 ‘지옥행의 이유’에 있었고, 또한 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이들 작품은 지옥의 고통을 환기시켜 불도수행에 힘쓸 것을 권하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지옥 관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덕목들을 제공하거나 교육시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이상과 같은 내용적 특징은, 유교사회에서 존립하기 위한 당시 불교계의 현실적 모색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7) 시험삼아 일찍이 극락국에 純善者만이 왕생한다는 것을 논했었는데, 진실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仁義와 慈善의 마음이 지극하다면 극락국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지, 念佛한 사람만 극락국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不忠한 사람, 不孝한 사람으로 간사하고 패역한 사람은 다 지극히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만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당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군자만이 갈 것이고, 지옥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소인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실제의 말입니다.<sup>47)</sup>

47) “試嘗論之 極樂之國 純善者 往生之 苟能忠君孝父仁義慈善之心至極 則可以往生 非但念佛也 然則不忠不孝奸凶悖逆者 皆入地獄之極苦 非但謗佛也 故古人有曰 天堂無則已 有則君子陞之地獄無則已有則小人入之 定實際語也.” 蓮潭 有一, 『蓮潭大師 林下錄』 권4, 「上韓綾州必壽長書」. (『한국불교전서』 10, 283上)

인용문 (7)은 18세기 불교계의 중심인물인 蓮潭 有一(1720~1799)이 지은 「上韓綾州必壽長書」의 일부이다. 인용문에서 연담은 불교를 믿고 염불에 전념하는 사람만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인의와 자선의 마음이 지극한 사람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에 이어서, 부처를 비방하는 사람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불충·불효하여 간사하고 悖逆한 사람 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연담의 이러한 주장은 청허 휴정 이후 줄곧 견지해 온 儒佛會通의 관념을 더욱 발전시킨 것<sup>48)</sup>으로, 유교사회의 상식을 반영하여 유교와의 공존을 추구한 시대적 변용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sup>49)</sup> 그렇다면 19세기의 <회심곡>류 가사가 佛典 및 그 이전의 불교가사와 달리, 유교적 윤리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 점 역시, 유교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교의 ‘시대적 변용’의 또 다른 사례이자, 당시 불교계의 사상적 동향이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다른 측면으로, <회심곡>류 불교가사가 주로 탁발승이나 걸립패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탁발승과 걸립패는 그 성격상 일반 대중들의 관심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수요자의 구미에 알맞은 가사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구연할 수밖에 없었다.<sup>50)</sup> 그러므로 <회심곡>류 가사의 윤리적 성격은, 당시의 불교계뿐만 아니라 19세기 조선사회 전체의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19세기의 한글소설인 <목시룡전>과 <설홍전>에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회심곡>류 불교가사와 유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 주목을 요한다.

(8) 또 한 곳을 가보니, 어떠한 계집을 매로 치며 칼로 깎으며 가마솥에

48) 조성산, 「19세기 전반 노론계 불교인식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상사학』 13, 한국사상사학회, 1999, 312쪽.

49)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359쪽.

50) 김종진, 앞의 책, 45~46쪽.

물을 끓여 먹이는데 아이가 울거늘, 한림(목시룡)이 물으니 사자가 대답하기를 “저 계집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부모에게 불효하고 친척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화합하지 못하였기에 전생의 죄가 무거워 무식하게 되었던니, 남의 자식을 얻어 키우다가 그 아이를 죽여 남이 모르게 묻고 헛말로 남의 자식이라서 도망하였다고 거짓말 한 죄로 저러한 악한 형벌을 당한 후에 다시 가마솥에 넣어 삶을 것이요. 저 아이는 애달프게 죽었기에 우는 것입니다.”<sup>51)</sup>

(9) 또 혼 문 드러가니, 한 기집을 흥스로 목을 얼거 흥문 우의 밋여난디 식막신치 달여드려 눈을 파거날 흥니 무르니 스즈 답 왈, “저여은 거딧말 즐 흥고 나무게 니간벗쳐 시식 붓치기가 일수요, 죄업난 스람을 허물을 즈아니야 저악흔 죄로 그리흐나이다.” …(중략)… 또 혼 문을 드러가니, 혼 스즈 혼 스람을 끌고 나오디 허리의난 밋식되고 허리우의난 씨고리 도얏난디 피시 씨고리를 물고 이리저리 구리난디 억기 우이난 스람이요, 머리이난 썰리 듯고 귀가 느려져 얼굴을 업퍼거날 흥이 무르이 스즈 답 왈, “그난 초국 스람이라. 마암이 불칙혀 남의 수만금 지물을 아스 먹은고로 여러 가지 허물을 입퍼 청손디옥이 가두어나이다.”<sup>52)</sup>

(8)은 <목시룡전>, (9)는 <설홍전>의 지옥 관련 부분을 옮긴 것이다. 목시룡은 동정호에 빠져 죽은 동생을 구해주지 않은 용왕을 원망하다가 꿈에서 지옥으로 끌려간다. 하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여러 가지 징벌을 받고 있는 죄인들을 보게 된다. 인용문 (8)은 매를 맞고 몸이 칼로 깎이는 징벌을 받는 여자죄인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염라왕의 사자는 그 여인이 지옥의 징벌을 받는 이유로 부모불효·親戚不睦·兄弟不和의 죄목을 들고 있다. 설홍의 경우는,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계모 밑에서 자라다가 산속에 버려진 후, 봉황이 물어다 준 天桃를 먹었다는 죄로 염라대왕에게 잡혀간다. 그녀 역시 무죄 방면되어 돌아오는 길에 징벌을 받는 여러 죄인들을 목격하는데, 인용문 (9)는 ‘거

51) 작자미상, <목시룡전> (김수봉, 『한글필사본 고소설 역·주해』, 국학자료원, 177~179쪽)

52) 작자미상, <설홍전> (임주영 주해, 『설홍전』, 박이정, 32~33쪽)

짓말을 잘하고 이간시킨 죄’·‘남의 없는 잘못을 지어낸 죄’로 징벌을 받는 여자와, ‘남의 재물을 빼앗은 죄’로 鐵床地獄에 갇혀 있는 남자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인용문 (8)·(9)에서 징벌의 이유로 서술된 불효·불목·거짓말·이간질 등은 모두 <회심곡>류 가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악행의 항목들에 해당한다. 이들 한글소설 역시 지옥행의 원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 규범의 강조는 사실, <회심곡>류 가사와 <목시룡전>·<설홍전> 등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19세기에는 도교의 ‘勸善書’가 집중적으로 간행되고 있는데, 특히 『敬信錄諺釋』·『太上感應篇圖說諺解』·『關聖帝君明聖經諺解』 등의 언해본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53)</sup> 이들 권선서는 대체로 선행의 실천과 악행의 금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선행’의 항목에는 忠·孝·信의 유교적 덕목과 자비·보시의 불교적 덕목,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윤리 규범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54)</sup> 또한 이 시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화서의 찬술 및 간행이 급증하고 있으며,<sup>55)</sup> 유교적 교훈가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自警別曲>이 창작·향유되고 있다.<sup>56)</sup> <자경별곡>은 부자·군신·형제·남녀·長幼·師弟·朋友 등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유교적 윤리규범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sup>57)</sup>

이상과 같은 유교적 윤리의식의 고양 내지 강화는 무엇보다 三政의 문란, 잦은 민란의 발생, 천주교의 교세 확장 등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사회

53) 이에나가 유코, 「조선후기 윤리신앙의 다변화와 도교 선서 유행」, 『역사민속학』 30, 역사민속학회, 2009, 310~312쪽.

54) 김낙필,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윤리사상」, 『도교문화연구』 1, 한국도교문화학회, 1992, 367~368쪽.

55) 황수연, 「19~20세기 초 규훈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362~364쪽; 강성숙, 「19세기 여성 孝烈 담론 일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3, 57~58쪽.

56) 이 가사는 율곡 이이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강전섭(「傳율곡선생작 가사에 대한 관견」, 『한국언어문학』 21, 한국언어문학학회, 1982)과 조동일(「가사에서 전개된 종교사상 논쟁」,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문예출판사, 1993)의 견해를 따른다.

57) 조동일, 앞의 논문, 174쪽.

적 혼란에 대한 19세기 조선사회의 위기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58)</sup> 특히 <회심곡>류 불교가사와 지옥 관련 한글소설의 창작·유통은 천주교의 유포 및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당시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천주교가 널리 확산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천당·지옥설’이었고, 집권층 및 儒家 지식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던 천주교의 교리 또한 천당·지옥설이었기 때문이다.

이가환(1742~1801)은 그의 ‘關異歌辭’인 <警世歌>에서, “턴주공경 아니하면 죄도만코 디옥간다” “공경하면 턴당가고 불공경은 디옥이르” “불시석가 가르침은 디즈디비 흐렷거늘/ 턴주심스 알곳도다”<sup>59)</sup>라고 하여, 일상적인 선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천주를 공경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천주교 교리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고종의 「斥邪論音」(1866)에서도 “천당을 만든 것은 천주를 잘 섬긴 자들의 영혼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지옥을 만든 것은 천주를 잘 섬기지 않는 자들의 영혼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이다.”<sup>60)</sup>라는 당시 천주교인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그 주장의 황당함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심곡>류 불교가사와 지옥 관련 한글소설이 지옥행의 원인을 강조하고, 그 원인으로 일상생활의 윤리규범을 제시한 까닭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곧 이들 작품의 내용적 특징은 천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는 천주교의 지옥설을 의식 내지 경계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지옥 형상화는 유교사회의 상식을 반영하여 유교와의 공존을 추구한 불교의 시대적 변용이자, 당시 널리 확산되고 있던 천주교의 지옥설에 대한 종교적·문학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58) 조성산, 앞의 논문, 317쪽.

59) 이가환, <警世歌> (김영수 편, 『천주가사 자료집』 상, 가톨릭대 출판부, 2001, 342쪽)

60) “又曰 造天堂 以福事天主者之靈魂 造地獄 以苦不事天主者之靈魂.” 『고종실록』 권3, 고종 3년 己丑 8월 3일.

## 참고문헌

道世 撰, 『法苑珠林』(『大正新修大藏經』 제53권)  
寶唱 等集, 『經律異相』(『大正新修大藏經』 제53권)  
實叉難陀 譯, 『地藏菩薩本願經』(『大正新修大藏經』 제13권)  
藏川 述, 『佛說預修十王生七經』(『大正新纂大日本續藏經』 제1권)  
蓮潭 有一, 『蓮潭大師林下錄』(『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97)

김기중, 『한국 불교시가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14.

김동국, 『회심곡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김종진, 『불교가사의 연행과 전승』, 이회문화사, 2002.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김정숙, 「조선시대 저승체험담 속 죽음과 환생의 이념성」, 『Journal of Korean Culture』 2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5, 116~139쪽.

김종진, 「〈회심곡〉 감상의 한 측면- 탕화와 관련하여」,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283~306쪽.

나희라, 「통일신라와 나말려초기 지옥관념의 전개」, 『한국문화』 4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245~264쪽.

연소영, 「佛經의 地獄相 유형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76,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393~410쪽.

이승남, 「불교가사 〈회심가〉와 〈회심곡〉의 대비 고찰」, 『어문학』 72, 한국어문학회, 2001, 237~257쪽.

전재강,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단락 전개·구성과 선악·생사관」, 『어

- 문학』 115, 한국어문학회, 2012, 135~161쪽.
- 조동일, 「가사에서 전개된 종교사상 논쟁」,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문예출판사, 1993, 166~189쪽.
- 조재현,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저승계 연구」, 『어문연구』 3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167~189쪽.
- 조성산, 「19세기 전반 노론계 불교인식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상사학』 13, 한국사상사학회, 1999, 307~335쪽.
- 지병규, 「〈회심곡〉의 연구」, 『어문연구』 21, 어문연구학회, 1991, 169~199쪽.

<Abstract>

## The Phase and Meaning of Hell Appearing in Gasa(歌辭) in the Late Joseon Era

Kim, Ki-Jong

This study explored the phase of figuration process of hell appearing in Buddhist Gasa and its meaning of the times. According to hell related motifs and content propensity, Buddhist Gasa singing about hell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In the first type there was no hell related motif, there are works in which only poetry words of 'hell' appear, and the earliest Buddhist Gasa, Gwisangok in the 17th century and Seowangga and Hoeshimga, etc. come under this type. These works warn hearers who only adhere to mundane affairs and indulged in absorption of tam-jin-chi through poetic words such as Palhan-Palyeol-Dosan-Geomsujiok, etc. The second type contains works of describing reasons of 'punishment' and phases. Those Gasa under this type introduce various kinds of hells, and describe painful figures in different hells in detail.

Works containing all of motives of 'a journey to the other world,' 'judges of ten kings of hell' and 'punishment of hell' come under the third type. Among these types of works, 'Hoeshimgok' style Buddhist Gasa distinguish male and female from convicts receiving Siwang's judge in a work. Virtues of good deeds and items of evil deeds appearing in these works come under usual ethical principles that should be kept and deterred in Confucian society. It can be said that notable reduction of

punishment motifs of hell in ‘Hoeshimgok’ style Buddhist Gasa was due to the fact that these Gasa’s directivity and/or Interest lied on these ‘reasons of going to hell.’

Content characteristics above are related with Buddhist world’s realities of groping at the time to survive in Confucian society. The reason that ‘Hoeshimgok’ style Gasa in the 19th century emphasizes not ten evils for reasons of going to hell as mainly presented in the Buddhist scriptures and previous Buddhist Gasa, but usual ethical principles that should be kept in Confucian society is not different from a case of transition of the times by reflecting common sense of Neo-Confucian society and pursuing a way of coexistence.

**Key words :** Gasa in the late Joseon Era, hell, Hoeshimgok(回心曲), a journey to the other world, judges of ten kings of hell, punishment of hell

투고일 : 2016년 7월 15일, 심사 : 8월 8일 ~ 8월 18일, 게재확정 : 8월 22일